연중 제7주일 강론(2020년 2월 23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이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국가 재난 상태로 선포되었다고 하죠. 제 미국 성당 신자들이 매일 저에게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한국 상황이 어떤지, 제 가족들은 감염된 사람이 없는지, 무사한지 걱정합니다. 갑자기 감염자가 늘어났죠?

뉴스를 보니까 어제 하루사이에 169명이 감염되었고, 현재 총 602명이 감염되었다고 해요. 그 중 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사이비 이단 종교인들로 인해서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교입니다. 우리 카톨릭은 물론이고, 개신교에서도 이단으로 판명된 사이비 종교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교방식이 워낙 은밀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정체 파악이 힘들답니다. 가족들도 서로 모르게 그 종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교를 위해 정체를 숨기고 다른 일반 교회나 단체에 조용히 잠입하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아주 위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 저기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녔던 거죠. 현재 밝혀진 바로는 전체 감염자의 55%가 이 종교 집단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감염 경로까지 예상하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백번 천번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반성해도 부족할 터인데, 그 사이비 교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대 피해자이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 사건은 우리 교단이 급성장되는 것을 보고 마귀가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다. 그러니 우리 잘못은 아니다.”

참 책임감도 없고, 이기적이고, 공동체를 위한 윤리 의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이비 자칭 목사와 그 일당들은 이 위중한 비상 상황에서, 저번 주말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를 예정대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과 단체들이 온갖 손해를 다 감수하고, 비상 근무를 하면서 대책 수립을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 주장과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우리 카톨릭 교회는 참 어렵고 힘든 결정을 성숙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 교구는 설립된지 109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미사를 포함해서 모든 미사를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구 차원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몇몇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처럼 하느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아주 다양한 십자가를 마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한가지 뿐입니다. 하느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를 청하고, 서로 주고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죠.

잘 나고, 고집세고, 교만한 인간에게 하느님이 내리신 가장 극적인 처방이 바로 ‘삶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은 다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되돌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순간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또 고통의 시간은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고통’이 갖는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라고 하죠.

오늘 복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여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서로 용서하여라.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모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인관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용서했다고 해도, 마음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다면 용서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해도,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계속 생각나면서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러면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사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원수 같은 이웃들, 내게 상처 준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랑으로 짊어질 때만 제대로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잔인하게도 인간은 백번 잘해줘도 단 한번의 실수를 기억 한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 단 한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며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내게 상처 준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당시에 통용되던 정의였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유행하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눈을 상해를 당했으면, 그 상대방의 눈에 똑같은 상해를 가하고, 팔을 상해를 당했으면, 똑같이 팔에 상해를 입히면서 되갚아주라는 것이죠. 아주 잔인해 보이는 법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의롭고 합당한 법입니다.

인간의 복수심은 끝이 없어서, 눈만 상해를 당했는데도, 상대방에게는 더 심한 복수를 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눈만 다쳤으면, 눈만 되갚음하라는 것이죠. 당한 만큼 거기까지만 복수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복수심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복수하고 싶은 원수들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라.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부메랑 아시죠? 새와 날짐승을 잡으려고 만들었다는 부메랑. 목표물을 향해 던지고, 그리고 되돌아 옵니다. 처음 던졌을 때의 속도와 힘으로 원위치하는 이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 비수로 다가오기도 하고 용기와 격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것은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으로 되돌아 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것은 내 마음의 고통과 번민으로 되돌아 옵니다.

우리들은 인생에서 어떤 부메랑을 던지는 것이 좋을까요? 용서와 사랑의 부메랑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시기의 부메랑을 던지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그대로 되돌아 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길, 사람은 죽을 때, “껄껄껄”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껄껄껄”하고 호탕하게 웃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 “~할껄,” “~할껄,” “~할껄” 하고 후회하면서 죽는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이 베풀고 살았으면 좋았을껄,” 두 번째는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껄,”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껄” 한답니다.

서운함보다는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겠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관계를 나빠질 이유가 없죠. 사람 관계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먼저 용서하시고, 상처받은 나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